



6월 전산업활동지수 두 달만에 상승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전산업활동지수(계절조정치)가 전월대비 0.2% 상승한 96.5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개선되었다고 발표함.

- 전산업활동지수는 경제전체의 생산활동 상황을 공급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급측면에서의 GDP라고 할 수 있음.
 - 산출방식은 농림수산업생산지수, 건설업활동지수, 광공업생산지수, 제3차 산업활동지수, 공무등(公務等)활동지수를 부가가치 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것임.¹⁾
- 산업별로는 6월 광공업생산지수가 전월대비 0.4% 상승한 92.6을 기록하였으며, 제3차 산업활동지수는 0.1% 상승한 99.4로 나타남.
 - 반면, 건설활동지수와 공무등(公務等)활동지수는 각각 0.1%와 0.2% 하락한 78.2와 97.4를 기록함.

■ 6월 전산업공급지수(최종수요부문계)는 97.3을 기록해 전월대비 1.1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- 수요항목별로는 소비가 전월대비 1.1% 상승한 102.5를 기록하였으나, 투자는 전월대비 1.1% 하락한 86.1을 기록함.
 - 소비는 개인소비가 전월대비 0.1% 하락하였으나 정부소비가 0.3%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의 상승세를 유도함.
 - 반면, 투자는 공공투자, 민간주택, 민간기업설비 등이 각각 1.3%, 0.3%, 1.9% 하락하였음.
- 수출과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0.7%, 2.8% 하락한 108.8과 110.8을 기록함.

(경제산업성 外, 8/23)

1) 전산업활동지수는 계열별로 5개의 지수를 기준년(2005년)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부가가치 가중치를 구성비로 통합하여 계산하며, 자료 보정은 연 1회(통상적으로 다음해 2월분의 지수 공표시에 실시)로 전년 1년간의 수치를 일괄로 수정함.